

AUTHOR 조진모

TITLE 칼빈 신학에서 양자 교리의 위치

IN 신학정론

vol. 52 (5, 2009): 79-105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직분론에서 있어서 칼빈이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혁교회는 교리적인 면에서 바른 교회를 이어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sup>61)</sup>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칼빈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면, 그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제정하실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다……이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다: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이고, 왕이나 농부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낳고, 젖먹이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이 일은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보다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교만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물론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신적인 영향력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무엇인가이다.<sup>62)</sup>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바르게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나 능력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직분에 대하여 성경에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잘 살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칼빈 신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며, 그의 직분론에서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61) 이 명제에 근거하여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다.

62)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엡 4:13), p. 282.

[신학정론 2009.5. 제27권1호 pp.79-105]

## 칼빈 신학에서 양자 교리의 위치

조진모

[역사신학 · 전임강사]

### 들어가는 글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1509~1564)은 양자 교리를 중시하였는가? 기독교 강요는 그의 신학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귀한 자료다.<sup>1)</sup>

1)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년 라틴어 초판 이후로 1539, 1543, 1550년에 개정되었으며, 1559년에 최종판이 출판되었다. 모두가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이하는 CO로 표기) I, II에 수록되어 있다. 1536년판 인용에는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1536 Edition, tr.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을 참조한다. 또한 1559년판 인용에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을 참조한다. 대부분의 칼빈 학자들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1539년판부터는 목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신학의 근본적 개념을 정리하였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William S. Barker,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Institutes* as a Work in Theology,"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eds.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08), 8-10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 책에서 그는 양자 교리를 독립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칼빈이 남긴 다른 문헌에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으나 극히 간헐적이며 부분적이다. 그러므로 Robert Webb은 칼빈이 양자 교리에 대하여 어떤 암시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2)</sup> J. Todd Billings와 Dennis E. Tamburellos도 칼빈이 우리의 양자됨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접붙임” 또는 “참여함” 등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고 보았다.<sup>3)</sup> 더욱이 B. A. Gerrish도 칼빈은 성도의 양자 개념을 복음의 핵심으로 정의하였지만 특정한 교리로 발전시키지 않은 복잡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와 반대로 칼빈이 성도의 양자됨을 중요한 교리로 다루었다는 의견도 있다. Howard Griffith는 성도의 양자됨은 칼빈의 구원 이해에서 핵심이 되었으며, 그가 양자 교리를 구원론의 근본적 구조의 범주 안에 넣었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Sinclair B. Ferguson은 칼빈이 양자 교리를 따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그가 이 교리를 자신의 모든 글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sup>6)</sup>

여러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조직신학자인 멜랑흐톤의 *Loci communes* (1521-55)와 쾰빙글리가 1525년에 출판한 조직신학서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주석」과 함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2) Robert A. Webb, *The Reformed Doctrine of Adop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47);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17.
- 3)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the Activity of Believers in Union with Chri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93-95;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90.
- 4) B. A. Gerrish, *Grace and Gratitude: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 T & Clark, 1993), 123.
- 5) Howard Griffith, "The First Title of the Spirit: Adoption in Calvin's Soteriology," *Evangelical Quarterly* 73:2 (2001): 135, 152.
- 6) Sinclair B. Ferguson, "The Reformed Doctrine of Sonship", in *Pulpit and People, Essays in Honour of William Still*, Nigel M. de S. Cameron and Sinclair B.

Nigel Westhead 역시 칼빈의 양자 교리가 그의 신학 전반에 걸쳐 현저히 드러난다고 보았다.<sup>7)</sup> 또한 Tim Trumper는 칼빈이 양자 교리를 기독교 강요의 중심이 되는 주제로 다루었으나 후대 신학자들이 그의 신학적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논하였다.<sup>8)</sup> 대부분의 칼빈 학자들은 양자 교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소수의 의견도 위와 같이 일치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Joel R. Beeke는 양자 교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나 다행스럽게도 요즘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연구된 문헌을 면밀하게 소개하였다.<sup>9)</sup> 그러나 칼빈의 양자 교리의 성격 규명은 아직 속세로 남아있다.

본 논문의 논자는 칼빈이 기독교론을 토대로 하여 양자 교리를 설명하면서도, 구속 역사를 중심한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을 조화롭게 포함시켜 해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려 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정하심이 우리의 양자됨과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양자됨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 1.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양자됨

- Ferguson, Eds. (Edinburgh: Rutherford House, 1986), 81-88.
- 7) Nigel Westhead, "Adoption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13 (1995): 102-115.
- 8) Tim J. R. Trumper, "The Theological History of Adoption I: An Account," *Scottish Bulletin of Evangelical Theology* 20:1 (2002): 18-20.
- 9) Joel R. Beeke, *Heirs with Christ: The Puritans on Adoption*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08), pp. 1-14.

## (1) 창조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년 초판은 두 가지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게 대한 지식의 소개로 시작된다.<sup>10)</sup> 1539년 개정판도 마찬가지다. 단지 두 종류의 지식이 지닌 상호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sup>11)</sup> 1559년 최종판에도 역시 두 가지 지식을 가장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나, 새롭게 추가된 1권 2장에서 세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sup>12)</sup> 첫째는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로서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1536년 초판은 루터의 문답서(1529)의 순서를 따라 율법, 믿음, 주기도문, 그리고 성례의 순서로 집필되었다. 그런데 루터의 문답서에는 양자 교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빈이 젊은 시절에 루터로부터 신학적 영향을 받았기에 그의 초기 저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sup>13)</sup>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또한 2권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10) *Institutes* (1536), 1.1-2 (CO 1:27-29).

11) *Institutes* (1539), 1.1-3 (CO 1:279-82); Serene Jones,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p. 100.

12) *Institutes*, 1.2.1-2 (CO 2:34-36).

13) 젊은 칼빈이 루터로부터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칼빈이 자신의 독특한 독립적 신학 사상을 구축한 상태에서 루터의 사상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비평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Robert Benedetto, ed. (Grand Rapids: Baker Books, 1996), p. 104;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 trans. David Foxgrover and Wade Provo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7), p. 145; I. John Hesselink, "The Development and Purpose of Calvin's 'Institutes,'" *The Reformed Theological Review* 24(1965): 210-11.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치자 하나님과 사랑의 아버지라는 두 개념이 어울려 기독교 강요 전체에 걸쳐서 조화롭게 나타난다는 의견도 있다.<sup>14)</sup>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알게 될 때 그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극히 크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학문과 경건의 조화를 추구하였던 칼빈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논할 때 언급된다. 칼빈은 창조주와 창조물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창조주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전제해야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5)</sup> 우리는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를 아버지로 알 수 있다.<sup>16)</sup> 이것은 인간에게 심겨진 지식(*sensus divinitatis*)이다. 이것은

14) Garret A. Wiltedink는 "The Fatherhood of God in Calvin's Thought," *Reformed Review* 30 (1976-77): 10.

15) John Leith, *A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pp. 108-09. 칼빈은 이신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을 인간으로부터 동떨어져 계시는 분으로 보지 않았으며 중세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의 주장과 같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내재하는 분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칼빈이 창조자와 창조물의 사이를 구분한 이유는 그가 이원론을 주장하려 했다는 것보다 영월하시며 능력이 충분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무능하며 악한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데에 있다. Philip Walker Butin, *Revelation, Redemption and Response; Calvin's Trinitari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Human Relatio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51-52. Butin은 칼빈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인간을 위해 하시는 일의 근원과 발단을 가리킨다고 언급하였다.

16) *Institutes* 1.3 (CO 2:36-38). K. Scott Oliphint, "A Primal and Simple Knowledge," in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eds. (Phillipsburg: P&R Publishing, 2008), pp. 25-36; T.H.L. Parker, *Calvi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pp. 16-21; Davis Curtis Steinmetz, *Calvin in Con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나 외부로부터 얻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 수 있다. 칼빈은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한 플라톤 철학과 유사하게 육체에 비하여 영혼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따랐던 것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주된 죄소는 영혼이었으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17)</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을 아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sup>18)</sup>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으로써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할 수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굉장한 탁월한 은사들을 주시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 그에게 이끌려 그를 향하여 사랑과 경배의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러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부연하였다.<sup>19)</sup>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 죄 때문에 오염되었다는 것에 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에 치명적 영향을 주었다.<sup>20)</sup> 인간의 이성은

Press, 1995), pp. 23-25; T. A. Noble, "Our Knowledge of God according to John Calvin," *The Evangelical Quarterly*, 54 (1982): 2-5를 참고하시오.

17) *Institutes*, 1.15.3 (CO 2:363).

18) *Institutes*, 1.15.2 (CO 2:362).

19) *Institutes* 1.5.3 (CO 2:232).

20) Anthony Andrew Hoekema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에 대한 칼빈의 다양한 표현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나, 자세히 보면 아담이 타락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였지만 극히 제한되었으며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처지에 놓여져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4), p. 43.

한계가 있다. 아무리 명석한 자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길이 없다. 오로지 이런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증생한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영적인 분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적인 분별은 주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 (1) 하나님을 아는 지식,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다운 사랑을 아는 지식 -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3)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 처음 두 가자에 대해서는 - 특히 두 번째에 대해서는 - 가장 위대하다는 천재들도 두더지보다도 더 무지몽매하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확실히 증거로 받는다.<sup>21)</sup>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나타내시길 원하셨다. 타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후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그의 자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 (2) 작정하심

칼빈은 창조의 완벽과 인간의 자의적 타락 후의 부패된 상태를 대조하면서 중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선택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는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했다.<sup>22)</sup> 칼빈은 중재자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중보자가 이루실 일이 결코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21) *Institutes*, 1.8.13 (CO 2:275).

22) *Institutes*, 2.12.1 (CO 2:340).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그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셔서 사람의 자녀들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고, 계헨나(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보증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신뢰하는 것이다.<sup>23)</sup>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자녀의 축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는 그의 자녀 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었다.<sup>24)</sup>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즉 중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사실 칼빈의 양자 교리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실천적이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복음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졌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이해하게 되었다.<sup>25)</sup> 그런데 칼빈은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계획된 일로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23) *Institutes*, 2.12.2 (CO 2:341).

24) *Comm. Heb.* 1:2 (CO 55:11). 이하 주석은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 (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을 사용하였다. Randall Zachman은 "Jesus Christ as the Ima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Calvin Theological Journal* 25:1 (April, 1990): 47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되심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Prins, "Image of God in Adam and the restoration of man in Jesus Christ: A Study in Calvi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25:1 (1972): 32-44; Jane Dempsey Douglass, "The Image of God in Humanity: A Comparison of Calvin's Teaching in 1536 and 1559" in *Papers from the 1968 International Calvin Symposium* (McGill University, Montreal: McGill University, 1987), pp. 175-203을 참고하라.

25) *Institutes*, 3.21.1 (CO 2:678-80). 칼빈은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예정론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보았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연구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경내를 침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출발점으로 삼고 그가 계시하신 부분을 습득할 때 유익할 것으로 보았다.

통하여 역사 가운데 실행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26)</sup> 아담의 죄의 결과에 의한 후속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sup>27)</sup> 안셀름은 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에 대하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그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sup>28)</sup>

칼빈의 신학 사상은 언제나 도전을 받았다. 특히 인간의 공로를 기초로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에 대하여 제 가치를 다할 것이라고 미리 아시는 자들을 자녀로 입양시키고, 그가 보시기에 악한 의도와 불경에 빠지게 될 성향을 지닌 자들은 죽음의 저주에 내어주신다"고 주장하였다.<sup>29)</sup> 그러나 칼빈은 그들에 대하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sup>30)</sup>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칼빈이 에베소서 1:4~5에 대하여 주석한 내용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로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26) *Comm. Titus* 1:3 (CO 52:407).

27) Richard Muller는 *Christ and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Durham, The Labyrinth Press, 1986), 35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그리스도의 기독론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가 칼빈의 신학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고 보았다.

28) Randall Zachman, 위의 글, p. 47; Paul Helm, *Calvin's Ide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343; Brian Davies and Brian Leftow,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sel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96; Wendel, 위의 책, 272.

29) *Institutes*, 3.22.1 (CO 2:687). 예정론에 관하여 칼빈은 Albert Pighius(1490-1542)와 Jerome Bolsec(?-1584)과의 논쟁이 있었다. Wulfert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trans. Lyle D. Bierma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144-146, 101-103을 참고하십시오.

30) *Institutes*, 3.22.1 (CO 2:688).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기에 그것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신 것이다.”<sup>31)</sup>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양자로 삼고자 하신 계획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주권적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유효한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실질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시며,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요약하였다.<sup>32)</sup>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언약의 성취였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원 계획의 실행이었다는 것이다. 오로지 중재자인 그리스도만 이를 수 있는 이 언약을 칼빈은 “양자의 언약(covenant of adoption)”이라고 불렀다.<sup>33)</sup>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sup>34)</sup> 양자됨의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다.<sup>35)</sup>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콥을 선택하신 것처럼 비밀스런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지정하신 것이다. 실로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31) Comm. Eph. 1:4 (CO 51:147).

32) Comm. Eph. 1:5 (CO 51:148).

33) *Institutes* 2.7.2 (CO 2:254).

34) Peter Lillback은 *The Binding of God: Calvin's Role in the Development of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139-41에서 칼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개념과 양자됨이 동의어로 사용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주석 전체를 통하여 약속과 양자 개념이 줄곧 언약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5) *Institutes*, 3.22.6 (CO 2:692).

## 2. 그리스도와 우리의 양자됨

### (1) 성육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 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셨다.<sup>36)</sup>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 것은 언약의 맹세에 근거한 구원론적인 필요성 때문이었다. 칼빈은 칼케돈 신조를 정통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는 초대교회의 기독교론 논쟁을 반복하려는 의도로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의 자격을 갖추셨음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7)</sup>

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인간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그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공급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아들”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영입될 수 없었을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삼중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다.<sup>38)</sup>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역하신 분이다. 그의 인성이나 또는 신성만으로는 이를

36) Joseph N. Tylanda,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of Propertie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Fall, 1975), 54-65.

37) Comm. John 20:28 (CO 47:444); Derek W. H. Thoma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David W. Hall and Peter A. Lillback eds.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ssays and Analysis* (Phillipsburg: P&R Publishing), pp. 205-25.

38) Richard Muller는 *Christ and Decree*, p. 31에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후의 개혁주의 기독교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역설했다.

수 없는 구속을 그가 성육신하시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소유하셨기에 대속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것이다.<sup>39)</sup> 구약에서 기름부음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임명할 때 행하여졌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그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후 감당하셨던 구원 사역을 위한 그의 직분을 종합적으로 이르는 말이다.<sup>40)</sup>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형제로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유일하신 아버지께 속한 부패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다.<sup>41)</sup> 하나님은 지옥을 향해가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영입하셔서 하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sup>42)</sup>

칼빈의 신학적 논쟁을 살펴보면 성육신을 통한 양자됨의 확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했던 메노 시몬즈에 대한 논박을 살펴보자.<sup>43)</sup> 그의 주장은 과거 초대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의 가현설을 주장했던 마니교도들이나 그의 몸을 천상의 육신이라고 우겼던 마르키온파들과 유사하다.<sup>44)</sup>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몸은 어떤 것이었느냐에 두는 것보다 그 몸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소유하신 것은 그가 그 몸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본성과 같아지신 것은 양자됨 우리와 형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다른 양자들보다 탁월하며 그들을 자기 아래 두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을 부정했던 세르베투스에 대한 칼빈의 논박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45)</sup> 세르베투스 역시 초대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 놓은 이단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는 성모 마리아가 낳은 그리스도는 신성은 없었고 오로지 인성만 있었다고 주장한 네스토리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전통을 따랐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한 유태케스의 주장도 혼합하였다.<sup>46)</sup>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본질이 신성으로 변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한 관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는 창조의 연장된 행동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으나 본질상 "하나님 아들"이 되신 것은 성도들의 양자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sup>47)</sup>

하나님의 양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토록 칼빈은 죄인의 양자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

## (2) 그리스도의 죽으심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작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선택이 실행에 옮겨진 것도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sup>48)</sup>

39) *Institutes*, 2.14.3-4 (CO 2:354-56).

40) *Institutes*, 2.15.1 (CO 2:361).

41) *Comm. Rom.*, 8:17 (CO 49:150-51).

42) *Institutes*, 2.12.2 (CO 2:341).

43) *Institutes*, 2.13.1-2 (CO 2:347-350).

44) Michael Horton, *Lord and Servant: A Covenant Christology*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pp. 166-67; 129-30; Thmas N. Finger, *A Contemporary Anabaptist Theology* (Downers Grove, IL: IVP, 2004), 385-87.

45) *Institutes*, 2.14.4-8 (CO 2:355-61).

46) Andrew M. T. Dibb, *Servetus, Swedenborg and the Nature of God*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5), pp. 45-126; Jerome Fiedman, *Michael Servetus: A Case Study in Total Heresy* (Gen ve: Droz, 1978), pp. 61-74.

47) *Institutes*, 2.14.5 (CO 2:356-57).



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구원의 계획과 성취라는 구조 속에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지는 것이다.<sup>49)</sup>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민구원론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12:32 등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설득시키려 한다.<sup>50)</sup> 특히 그러나 칼빈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자녀를 품으시고 선택하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51)</sup> 그는 요한복음 12:32에 나오는 “모든”이란 단어를 해석하면서,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sup>52)</sup> 또한 유사구절인 요한복음 11:51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해석하였다.<sup>53)</sup>

그리스도는 평생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의 성육신과 지상 생활 그리고 죽음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모습이었다. 그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이기 위해 유죄한 자로의 죽음을

48) Comm. I Peter 1:20 (CO 55:226). 이와 달리 R. T. Kendall은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 15에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선택의 실행과 연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믿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9) Comm. Matt 11:27 (CO 45:319); Comm. John 17:6 (CO 47:379).

50) John Sanders는 *No Other Name: An Investigation into the Destiny of the Unevangeliz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2), p. 83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구원의 범위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 Michael Thomas는 *The Extent of the Atonement: A Dilemma for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the Consensus* (Carlisle: Paternoster, 1997), p. 20에서 모든 죄인을 향하여 값없이 선포되는 구원의 복음을 강조한 칼빈에게서 특정한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개념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단언했다.

51) Comm. Mark 10:21 (CO 45:540).

52) Comm. John 12:32 (CO 47:294).

53) Comm. John 11:51 (CO 47:275).

택하였다.<sup>54)</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육체적 죽음 이상의 것으로 보았다.<sup>55)</sup>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립 구도로 놓은 것을 거부했다. 도리어 그는 이 두 가지를 인간의 불의한 모습과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언급한다.<sup>56)</sup> 창세전에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죄인을 향한 진노와 사랑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문제를 기독교 강요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에 의거하여 풀이했다. 죄에 대하여 무섭게 반응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때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파멸의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sup>57)</sup>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평화를

54) *Institutes*, 2.16.5 (CO 2:371).

55) *Institutes*, 2.16.10 (CO 2:376).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칼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옥 강하를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취급하였다. 지옥 강하란 초대교회부터 고백되어진 사도신경에 포함된 “지옥에 내려가사” 라고 언급된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직접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해석을 취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심각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였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정죄하시고 버리시는 경험을 하면서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난을 경험하였다. 또한 그의 고통의 죽음은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결국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 James F. Kay, “He Descended into Hell,” *Exploring and Proclaiming the Apostles' Creed*, Roger E. Van Harn, ed. (Grand Rapids: Wm. B. Eerdmans, 2004), 124-26; Rufus M. Jones, *Spiritual Reformer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Kressinger Publishing, 1998), 91을 참고하라.

56)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4에서 먼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후, 16장 5-19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음을 설명한다.

57) *Institutes*, 2.16.3 (CO 2:369).

누릴 수 있다고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sup>58)</sup> 우리를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랑의 결정체이다.<sup>59)</sup> 칼빈은 이것을 “놀라운 교환(*mirifica commutatio*)”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과연 그가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행하신 놀라운 교환이다. 곧 그가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준비하셨으며, 친히 우리의 유한한 운명을 취하심으로써 자기의 영생을 우리에게 배풀어 주셨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 취하시고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셨으며, 친히 우리의 궁핍함을 취하시고서 자기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배풀어 주셨으며, 우리를 억누르는 그 무거운 우리의 불의를 스스로 지시고서 자기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이다.<sup>60)</sup>

칼빈은 놀라운 교환의 근거를 지금까지 서술한 두 가지, 즉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았다.<sup>61)</sup>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오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개념은 칼빈이 성례를 통하여 얻는 확신과 기쁨에 대하여 논하며 언급한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됨을 확신하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3. 성령의 사역과 양자됨

58) *Institutes*, 2.16.2 (CO 2:369).

59) *Institutes*, 2.16.4 (CO 2:370).

60) *Institutes*, 4.17.2 (CO 2:1003).

61)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Oxford: Oxford University, 2007).

#### (1) 그리스도와의 연합

칼빈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가 지닌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일은 성령의 비밀스런 단독 사역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역할을 말한다.<sup>62)</sup>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접목시키시는 이 연합은 영적일 뿐 아니라 실제적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의 본질과 한 몸이 된다.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그 나무와 한 몸이 된 것과 유사하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는 그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와 하나가 될 때까지 자란다.<sup>63)</sup>

칼빈은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불렀다.<sup>64)</sup>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양자됨을 명백히 증거하고 확인시키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어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sup>65)</sup> 칼빈은 확실한 지식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62) *Institutes*, 3.1.1 (CO 2:394).

63) *Institutes*, 3.2.24 (CO 2:418). 루터교 신학자 오시안터는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적이며 영적인 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오시안터를 반박하는 칼빈의 글은 *Institutes* 3.11.5.13에 기록되어있다. Mark A. Garcia, "Imputation and the Christology of Union with Christ: Calvin, Osiander, and the Contemporary Quest for a Reformed Model,"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68(2006): 219-51, Lewis Smedes, *All Things Made New: A Theology of Man's Union with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0), 26-27을 참고하라.

64) *Institutes*, 3.1.3 (CO 2:395). 칼빈은 연합을 통하여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칭호를 열거하면서, '양자의 영'을 가장 먼저 소개하였다. Howard Griffith, "The First Title of the Spirit," 147-52; Randall C. Zachman, *The Assurance of Faith: Conscience in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and John Calvi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217-18을 보라

본다.<sup>66)</sup> 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게 하는 도구이다. 머리로 이해하고 찬동하여 사변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한다.<sup>67)</sup>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제한하여 이 믿음을 허락하신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공통점은 성령께서 양자됨에 대한 증거를 얻지 못한 채 신앙을 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양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확신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먼저 칼빈은 “유형의 믿음”과 “무형의 믿음”을 나누는 자들의 신앙을 논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도, 경건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은 모조리 다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한다.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시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sup>68)</sup>

또한 칼빈은 실상은 유기되었으나 잠시 동안 택함을 받은 자들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양자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영적 은혜의 능력과 확실한 믿음의 빛을 진정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다.

65) *Institutes*, 3.1.4 (CO 2:396). Dennis E. Tamburello는 칼빈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음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보았다고 본다.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pp. 84-85.

66) *Comm. Eph.* 1:13 (CO 51:153).

67) *Comm. I Pet.* 1:21(CO 55:227), *John* 14:6 (CO 47:324).

68) *Institutes*, 3.2.8 (CO 2:349).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정죄하고 핍계가 없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의 선하심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일 뿐이다. (중략)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아주 비슷하고 유사점이 많지만, 바울의 말씀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확신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sup>69)</sup>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은 참된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의 연약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의심 없이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은 진실된 것이다. 성령의 사역 때문이다.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에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결점 투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자된 사실의 확실한 보증이시요 인침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새겨 놓으신 표지가 절대로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의 경우는 그런 빛이 비취도 얼마 후에 다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sup>70)</sup>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을 알려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받을 때마다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

## (2) 이중 은혜

### 1) 칭의: 양자됨의 선언

69) *Institutes*, 3.2.11 (CO 2:406).

70) *Institutes*, 3.2.12 (CO 2:407). Joel Beeke,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Peter Land, 1994), p. 69.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 은혜를 받는다. 칭의와 성화를 가리키는데, duplex gratia라는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기에 반드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으로 알려주고 있다.<sup>71)</sup> 칼빈이 이해한 칭의는 법적 개념이다.<sup>72)</sup>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법정의 공의에 따라 판결을 받는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곳은 세상의 법정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다. 재판장은 죄를 증오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는 유죄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가 예리하게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시며 심사하신다. 이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여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기는 은혜의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원수 되었던 불의한 자들을 향해 의롭게 되었고 선언하신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칼빈이 칭의와 우리의 양자됨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양자는 칭의와 같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은혜로 용납하심에 공통점이 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으실 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다. 칭의와 양자 삼으심은 모두 선택하신 자들을 받아들이시는 신적 활동이다. 배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는 이차적 원인에 불과하다.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자마자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

71) Richard Gaffin, Jr.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칭의, 그리고 성화의 세 가지 개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적용을 주로 다루는 기독교 강요 3권에 나타난 칼빈의 의견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이해하였다. "Justification and Union with Christ,"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p. 253. 칼빈의 이중 은혜 교리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Mark A. Garcia: *Life in Christ: Union with Christ and Twofold Grace in Calvin's Theology* (Milton Keynes, Colorado Springs, Hyderabad, Paternoster, 2008)를 참고하라.

72) *Institutes*, 3.11.12. (CO 2:407). Wendel, *Calvin: Original and Development*, pp. 255-63을 참고하라.

고 말했다.<sup>73)</sup>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옮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후사, 의예의 참여자, 그리고 생명의 소유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됨도 칭의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춘 자는 오로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셨다. 칼빈은 이 사실을 장자의 권리를 얻은 야곱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sup>74)</sup>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고 하여서 실제적으로 장자가 된 것이 아니다. 장자로 태어난 것은 에서이다. 그러나 야곱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장자가 아닌 자가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우리의 만형인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그분 밑에 숨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만형 되신 그리스도의 고결함 밑에 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양자됨은 신분의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러나 칭의와 양자 사이에 신학적 차이점이 발견된다. 칼빈은 칭의 안에 죄 사함과 용납을 포함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용납하심에 대한 선행 조건이다.<sup>75)</sup>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 의롭다하심의 은혜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 후의 일이다. 죄를 증오하시고 죄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의로움에 대한 법정 선언 후에는 더 이상 진노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신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칭의는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sup>76)</sup>

73) *Institutes*, 3.15.6 (CO 2:583).

74) *Institutes*, 3.11.23 (CO 2:552). Davis Curtis Steinmetz, *Calvin in Contex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50-52를 참고하라.

75) *Institutes*, 3.11.2 (CO 2:533-534).

76) *Institutes*, 3.11.21 (CO 2:550).

그러므로 칭의에서의 죄 사함은 양자됨보다 선행되는 사건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수용하심은 양자됨의 선언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자됨 역시 죄 사함의 결과이며 화복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양자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다.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두려움의 대상되는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은 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양자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됨은 법적 용어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맺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나 칼빈은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칭의와 양자됨에 대한 이원론적 해석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는 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은 엄한 재판장이시며 양자됨은 선하신 아버지임을 애써 구명하려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죄로 부패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심각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토록 불의한 죄인을 향해 마음을 바꾸시어 용서하시고 양자를 삼으시어 화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강조하려 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칭의와 양자됨을 동떨어진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양자됨이 칭의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강요 3권 11장부터 19장에서 다루는 칭의에 대한 논의의 가장 처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는 두 가지 은혜인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다. 여기서 그는 칭의에 대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함으로써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다” 고 정의했다.<sup>77)</sup> 이 문장은 칭의에 대한 모든 내용의 요약이다. 칼빈이 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양자됨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 그를 화해의 수단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과 의롭다 인정받은 것을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였다.

77) *Institutes*, 3.11.1 (CO 2:533).

이토록 칼빈의 양자의 개념은 칭의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 2) 성화: 양자의 생활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은혜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중 은혜의 한 부분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나누어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구원 사역이 지닌 양면으로 이해하였다.<sup>78)</sup>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죄를 뉘우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취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죽은 자는 자신의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이다. 칼빈은 회개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한다.<sup>79)</sup> 그러기에 그는 회개와 중생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러한 변화는 평생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칼빈이 이해하는 성화도 이와 동일하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본 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곧 성화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여 외적 마음과 내적 삶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sup>80)</sup>

그렇다면 성화는 양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화는 양자됨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sup>81)</sup>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거룩한

78) *Comm. Acts 15:9* (CO 48:347). Roland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Geneva Divinity School Press: Edinburgh, 1982), pp. 23-27;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Gift*, pp. 106ff. 을 참고하라.

79) *Institutes*, 3.3.6 (CO 2:433).

80) *Comm. John 17:17* (CO 47:385).

81) *Institutes*, 3.6.3 (CO 2:503).

행위도 죄인의 굴레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성화는 아들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양자로 용납하신 자들의 성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신다. 육신의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살피듯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양자들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하신다. 특히 그 분은 우리가 양자의 영에 이끌려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낼 때 크게 기뻐하신다.

이 구절(롬 9:21)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흔적과 특질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중생이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바 있다.<sup>82)</sup>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됨을 선언 받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양자답게 살면서 그 자격을 확고히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아버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양자된 자격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생의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sup>83)</sup>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sup>84)</sup> 그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취한 참된 인간이셨으나 다른 인간과 다른 삶을 사셨다. 중보자의 신분을 가졌기에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여 육을 죽이는 일과 심령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를 양자로 삼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82) *Institutes*, 3.17.5 (CO 2:593).

83) *Institutes*, 3.6.1 (CO 2:501).

84) *Comm. Eph.* 4:24 (CO 51:208-29).

주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 조건,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배신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저버리는 행위인 것이다.<sup>85)</sup>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을 사셨으므로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의 고난에 동참한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고난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징벌이다. 양자된 우리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반드시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아버지의 인자와 관용을 발견할 수 있다.<sup>86)</sup> 하나님께서 양자로 용납하신 자들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 아들이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얼마나 이 징계를 잘 견딜 수 있는냐는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성화에 큰 유익을 준다고 확신했다.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사귄다.<sup>87)</sup>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인내와 순종을 실천하게 된다. 아담이 범한 죄의 근본은 불순종이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아담으로 인하여 부패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은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배운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경험한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한다.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십자가로 확신하게 된다.<sup>88)</sup> 이토록 십자가

85) *Institutes*, 3.6.3 (CO 2:503).

86) *Institutes*, 3.8.6 (CO 2:519).

87) *Comm. Heb.* 11:26 (CO 55:162).

88) *Institutes* (1559) 3.8.5 (CO 2:518).

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성화를 이루게 한다.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외부의 압박이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가능하다. 이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기쁨과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순종의 삶을 살며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 나가는 글

필자는 지금까지 칼빈이 양자 교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중시하면서도 구속역사를 중심으로 한 위대한 사역의 사역을 포함함으로써 우리의 양자됨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려 한 사실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칼빈이 양자인 우리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신분이 변화된 자체보다, 그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더욱 중요하게 다뤘다.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지닌 자녀를 향한 사랑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사랑과 관심으로 양자로 택하신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신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양자 교리를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가 이 교리를 덜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가 구원의 적용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개념으로 설명하려 한 것과 유사하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추적인 교리로 수용하였지만, 독립적으로 “설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고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칼빈은 우리의 양자됨에 대한 “선언”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을 “전제”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교리를 풀어 설명하려 하였다. 17세기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제34문

답), 대요리문답(제74문답), 그리고 신앙고백서(12장)는 양자 교리를 보다 선명하게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칼빈의 양자 교리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칼빈의 사상이 좀 더 표면화되고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의 양자 교리는 종말론적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줌으로써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며 형벌을 일삼으며 횡포를 부리는 아버지가 아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벌을 주시지만 이런 행동의 동기도 역시 사랑이다. 그는 능력과 지혜로 양자로 삼으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섭리자이시다. 그의 자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그에게 나갈 수 있다.

또한 칼빈은 대조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창조의 완벽성과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부패가 대조되었다. 타락하여 절망의 상태에 있던 인간과 값없는 구원의 은총이 대조되었다. 무엇보다 첫 아담의 불순종과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대조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양자된 우리는 반성하는 자세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결국 칼빈의 양자 교리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때 *Coram Deo*의 삶은 즐겁기만 하다.